

발간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발간에 부쳐

우리가 자연의 변화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지적 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이라는 것도 포착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아마 그럴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된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거나,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강력한 씨니피에(SIGNIFIE)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켜 체하는 여자들의 행동을 조롱하거나 꾸짖는 데 일고의 회의도 없이 사용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 예를 들어 신문과 뉴스의 톱기사에 고위층 사람들의 옷 로비 사건이 오르내릴 때도 여자들의 허영으로만 매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그쪽 계층 사람들 사이에 연결돼 있는 다른 메카니즘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우리의 인식을 이만큼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성문학에 대한 담론은 흥성하였으나 그 결실이 아직 미진하고, 그에 대한 논의들이 저널리즘적인 흥미를 상실한 지금, 여성문학학회의 설립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체험과 여성의 욕망을 공정하게 밝혀낼 학문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소한 한국여성문학은 가부장적인 담론이나 상업주의적 인 담론에서 벗어난 학문적 토대 위에서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제법 목소리들이 큰 쪽에 속하는 암탉들이 수백 명의 회원을 지향하며 결성한 이 집단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성문학학회는 이제까지 고립되어 개인적으로 혹은 소수 그룹으로 연구되어 왔던 여성문학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할 것이고, 장르와 시대를 연계하여 여성문학의 총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과 전망들을 논의하고 검토함으로써 여성문학의 다양한 흐름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개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여성문학학회의 연구가 여성문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새 힘이 되어 한국여성의 삶을 발전 시켜가길 기대한다.

이번에 나오는 『여성문학연구』 창간호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학회의 이러한 의지와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1998년 12월에 창간하여 이제 겨우 6개월 여만에 이와 같이 깊이 있고 다양한 글들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여성문학에 관한 관심과 애정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의 씨앗들이 학회지라는 터전에서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문학연구의 출발은 바로 지금부터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파도는 거칠다. 서툰 항해사는 방향을 잘못 잡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단합된 힘이 올바른 여성문학연구 활성화, 또 한국문학연구에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여성문학연구』라는 거친 항해에 돛을 하나 선뜻 달아주신 테학사 지현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나의 문장도 소홀히 하지 않은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999년 6월

한국여성문학학회 회장 이덕화